

다니엘서 3장

인트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찾기 다니엘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5장과 6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가 새겨지는 사건부터 사자굴 이야기까지 다루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 느부갓네살 죽음 이후 바벨론

(옆면 - 1촬영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에는 네 명의 왕을 거쳐갑니다. 느부갓네살 아들 마르둑 왕이 2년간 통치하다가 고모부 네리그리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가족간에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네리그리살 왕은 4년간 통치 한 뒤, 라바시-마르둑 왕에게 왕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이 왕은 겨우 9개월간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잣은 왕권 교체로 바벨론 제국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으로 나보니두스가 세워집니다. 나보니두스는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 느부갓네살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약 17년간 바벨론을 통치하여 마지막 10년은 거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터에서만 10년을 보낸 것이죠. 그러다보니 자신이 전쟁터에 있는 동안 본국을 다스릴 자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아들인 벨사살에게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벨’은 ‘왕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름처럼 자신을 신격화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옆면촬영 끝)

2. 벨사살 왕의 술 잔치

다니엘 5:1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지금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매대 바사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들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이 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술잔치를 벌이는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국이 여전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계속 되다보니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술잔치를 벌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다니엘 5: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의 아

버지가 느부갓네살이죠.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은 할아버지인셈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친이라 말합니다. 이는 그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아버지 위로 모두 부친이라 불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전쟁에서 취했던 전리품을 모두 가져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 빼앗은 금과 은그릇을 총동원하여 술을 따라 마시며 바벨론의 힘을 과시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빼난 과거를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 계속 말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계속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벨사살 왕은 나라 안에 바벨론이 아직 견제함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잔치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취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술 잔치를 벌이고 난뒤 “우리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소”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육체에 술을 가득 채웠지만 영혼에는 어느 무엇도 채울수 없는 공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벨사살이 천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벌인 성대한 잔치가 끝날 무렵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니엘 5:5-6

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불빛이 비치는 왕궁의 흰 석회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몸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창백해 집니다. 겁에 질려 재정신이 아니었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을 보고 뜻을 말하는 자는 이 나라에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 말합니다. 첫 번째 통치자는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고, 두 번째 통치자는 벨사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통치권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과연 모든 점쟁이와 술사 중에서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벨사살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 5: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SEP]

그렇게 왕비는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사실 당시 다니엘은 여든이 훨씬 넘는 나이었습니다. 벨사살왕도 선조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에 대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난 후 바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든이 훨씬 넘었지만 왕비의 말대로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으로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갖가지 상급을 겁니다. 해석만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합니다.

(옆면 3- 촬영 시작)

자주색 옷은 고대 시대 최고의 신분을 상징했던 옷입니다. 이 당시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은 그 엄청난 가격과 염색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최고급 옷감으로 인정되었고 곧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자주색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습니다. 최고급 원단인 자주옷감으로 국제무역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주색옷은 최고의 권력과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옆면촬영 끝)

하지만 여기서 다니엘은 왕의 상을 거절합니다. 이제 평생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 앞서 먼저 벨사살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느 누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니엘 5:22-23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
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지만 잠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고, 결국 짐승처럼 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벨사살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악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4.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다니엘은 석회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합니다.

다니엘 5:24-26

24 이어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데겔은 왕을 져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옆면 4- 촬영 시작)

성경에 나오는 손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손가락으로 벽에 쓰여진 글씨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겠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쓴 것은 아주 자세하게 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아주 정확히 해아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메네, 메네’ 셈하시며 해아리고 계십니다.

메네 메네는 또한 여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돌아오길 바라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메네 다음으로 쓰여진 단어는 무엇인가요? 데겔입니다. 데겔은 저울로 달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저울은 하나님의 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바르신입니다. 우바르신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그리고’를 뜻하는 ‘우’와 ‘베레스’의 복수형 ‘바르신’입니다. 바르신은 나라를 뜻하는데 복수형이니 두 나라라는 의미겠죠.

이것은 즉, 바벨론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의미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술잔치를 벌이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두 나라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나라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옆면촬영 끝)

벨사살왕은 이 선포를 듣고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며 셋째 통치자로 삼기위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날밤 벨사살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결국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며 악을 저질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그릇에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셋째, 우상숭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넷째, 사치와 방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루 밤에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단지 하룻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 메대 다리오왕의 등장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이

름이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메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잘 살펴보면 다리오는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로부터 통치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다리오가 고레스왕과 동일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오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총 사령관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다음으로 권력을 쥐어 제 2인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벨사살 왕이 죽던 날에 군대를 이끌고 습격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온 세계를 손아귀에 쥐고 영토를 넓혀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제국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을 함락 후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없어서 공을 세운 다리오에게 바벨론 일대를 통치하도록 위임한 것이죠.

6. 세움 받은 다니엘

다리오는 왕으로 세움 받은 후 정권을 교체 합니다. 백이십 명의 고위 관리를 교체하고 그 위에 세 명의 총리를 둡니다. 세 명의 총리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 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였고 여든 다섯 정도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운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총리 중에 가장 탁월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속도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합니다. 민첩하다는 것은 ‘성령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민첩해집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민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에 민첩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든이 넘는 나이었지만 성령에 붙들리어 행동하였기에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7.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의 계략

그렇기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 나라 전체를 통치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보며 다른 관리들이 좋아했을까요? 어떻게든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 끌어내리려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옆면 7- 촬영 시작)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감추고 싶은 허물이 많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이 다니엘의 파헤치고 파헤칠수록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돋보이게 됩니다. 업무에 있어서 태만이나 과실의 증거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니엘의 흠집을 찾길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를 유독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옆면촬영 끝)

그러나 고관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모의합니다. 왕을 통하여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의 흠집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왕에게 찾아가 칙령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6장 7-8절 말씀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30일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칙령으로 내려 모든 메대 페르시아의 법처럼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말로 하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30일동안 신이 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리오 왕으로서는 흔쾌히 이 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관들은 높아지려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칙령이 담긴 조서에 도장을 찍어 법을 통과시킵니다. 메대 페르시아의 특이한 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한번 만든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아들로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왕은 완전하며 또한 왕의 법령도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왕의 조서는 어인으로 인이 쳐지는 순간부터 변개치 못할 법률로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관들이 노렸던 것입니다.

8.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이러한 왕의 칙령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를 드려서는 안된다는 조서가 공표 되었음에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집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왜 구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을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텐데 말이죠. 법이 공표되었으니 그날 만큼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했어도 됐을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이유를 열왕기상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옆면-8 촬영 시작)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8-39절에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마도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 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옆면촬영 끝)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후 70년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다니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길 기도해야합니다.

9. 사단은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본 고관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삽십일 동안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를 올리면 안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왕이 “물론이오, 메대 페르시아의 법은 절대 변경할 수 없소”

이에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던 다리오왕은 어떻게던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다시 한 번 메대 페르시아 법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옆면-9 촬영 시작)

결국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사형수를 돌로 치거나 칼로 죽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을 모독하거나 왕의 법령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산 채로 풀무불에 태워 죽이거나 맹수 가운데 던져서 찢겨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의 초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돌 가마처럼 보이는 특이한 모양의 건물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의 용도를 기술한 비문에는 '사형장인 이곳에서 갈대아의 신들을 모독한 사람들을 화형시켰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몇몇 고고학자들에 의해 '사형장인 이곳에서 왕의 노여움을 산 자가 맹수에게 찢겨 죽었

노라'는 글이 적힌 우물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산궁의 유적지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은 B.C.484년경의 고관 명부가 발견되었고, 앗수르 왕 앗술바니팔이 그의 조부 산헤립을 본받아 '반역자들을 산 채로 황소와 사자굴 속에 던졌노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옆면촬영 끝)

그렇게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겨 가장 큰 형벌인 사자굴에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해를 당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아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7절 말씀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단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 하였습니다. 질투와 시샘을 이용하여 하나님아 나라가 회복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하룻밤이 끝나고 다리오왕은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죠.

이에 다니엘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아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몸을 살펴보니 사자에게 공격당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나라의 회복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 사자굴 입구를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악인들의 승리로 보였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10. 기도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이제 다리오왕은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 6장 26-27절 말씀입니다.

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아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 다리오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

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의 끈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